

Maison

marie claire

2025 AUGUST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패션 디자이너 엘리 미즈라히 집

TREND

욕실 인테리어

FOCUS

광주요 그룹이 지은 한옥, 수경재
그랑 팔레 리노베이션 이야기
V&A 이스트 스토어하우스

HOTEL

리트릿 리조트

3daysofdesign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적인 디자인 축제 하이라이트

정가 10,000원





© Federico Cadrone

1



© Federico Cadrone

2

Design & Culture

디자인은 이제 문화와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고전 조각이나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풀어내거나, 문화적 자산으로 남은 오래된 장소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은 시간과 맥락을 품은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조각이 된 목재, 알피

알피는 전시 <Echoes of Form>을 통해 목재를 조각적 언어로 풀어낸 설치를 선보였다. 고전 조각가 토르발센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토르발센 미술관을 배경으로, 감프라테시가 큐레이션을 맡아 클래식한 형식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했다. 입구에는 리셉션 데스크 형태의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내부에는 14개의 목재 토템이 같은 높이의 받침 위에 놓여 마치 무대의 피날레 장면을 연상케 한다. 각각 다른 종류의 알피 베니어(얇은 나무판)로 마감된 토템은 목재의 결, 색감, 광택 등 다양한 질감을 보여주며, 실험성과 장인정신을 동시에 담아낸다. 넌도는 나무 껍질과 암석을 연상시키는 입체적 텍스처를 표현했고, 감프라테시는 잎의 결을 담은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냈다. 이 외에도 에스튜디오 캄파나, 피에로 리소니, 콘스탄틴 그르치치 등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알피 소재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소재와 형태, 전통과 기술 사이에서 디자인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



© Federico Cadrone

3

1 네오클래식 조각과 어우러지는 알피의 리셉션 데스크. 2, 3 토르발센 미술관 중정에 설치된 목재 토템 14점.